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남원 청아원, 대외 경쟁력 입증

임실군, 5월까지 274명 순차 입국... 올해 역대 최대 356명 운영 예정

임실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며 농가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 33명과 베트남 계절근로자 72명의 단체입국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274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입국자 105명에는 지자체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입된 라오스 근로자와 지난해 말 베트남 푸엥광성 현지에서 직접 선발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월,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앞서 고용농가

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권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올해 임실군은 지난해보다 89명이 증가한 총 3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군은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4년간 총 7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특히,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과 안정적인 농작업 지원을 위해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

업 필수용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교재를 자체 제작·보급하고, 입실시나 어려움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반'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근로자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농작업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4월 1일 외국인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오수관촌농협과 협력해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엔 입국하는 베트남 근로자 40여명이 이 기숙사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투입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주요 공연예술 공모사업 4건 선정... 국·도비 3억9400만원 확보

남원시는 시립예술단 전용 공연장인 청아원이 2026년도 주요 공연예술 공모사업 4건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3억 9,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아원의 상설 창극 공연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로컬100 지역문화콘텐츠에 연속 선정되며 대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 시비 부담액을 포함해 총 4억 5,800만 원 규모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우수 레퍼토리 초청과 자체 제작을 병행하여 공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장르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동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과 서양음악을 결합한 오페라 '말뚝이 가리사대'(10월 17일), 국악·재즈 합동 콘서트 '그루브 in 관소리'(11월 6일)를 무대에 올린다.

또한 국립극장의 '2026년 찾아가는 국립극장' 공모에도 선정됨에 따라, 국립극악관현악단의 대표 공연 '신라 락 민나락'이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두 차례 공연된다.

남원만의 특색을 담은 민복사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 민복사, 첫눈에 남은 이야기'를 자체 제작해 11월 중 선보인다.

시는 남원의 문화자원을 공연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대표 레퍼토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남원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전통연희단 '청연'이 청아원과 협력해 창작공연 '남원 재주꾼 모집공고', 우수 레퍼토리 '광한투원에 피어난 연희꽃', '빛나는 밤에 청연' 등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빙동! 예술이 도착했습니다'를 10회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청아원의 상설 창극 공연은 '로컬100 지역문화콘텐츠' 2기에도 이름을 올리며 독보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재확인했으며, 2026년에는 시립극악단의 창작창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7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0회 공연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국가암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남원시보건소가 2026년 제19회 암 예방의 날 맞아 전북도에 실시한 국가암관리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국가암검진사업, 암관리사업 홍보, 재가암환자 관리,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남원시보건소는 전반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2025년 국가암검진 수검률 47.99%(1월 말 기준)를 기록하며 도내 수검률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으며, 암종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 안내와 언론보도, 캠페인, SNS, 전광판, 현수막, 지역행사 연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암검진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마음 헤아림 운영 등 지속적인 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통해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한편, 남원시보건소는 2026년에도 적극적인 국가암검진 홍보와 재가암환자 등록관리로 지역 사회 암 예방 및 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민공감 소통한마당 접수 건의사항 추진상황 점검

남원시, 308건 부서별 점검

남원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처리 실효성 제고와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 현황 공유를 넘어 건의사항의 추진 가능성과 예산 반영 여부, 부서 간 협업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총 30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건의사항은 도로·교통,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생활환경 개선, 문화·체육 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원로·추진 중·잠기검토·추진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었고, 특히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법적·재정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하고 대체방안과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시민소통담당관실,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국, 미래산업농정국, 안전건설국 및 직속기관 등 전 부서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협업 기반을 강화했다.

시는 건의사항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추진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기초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는 기초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 기초주거급여(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된 자가주택을 체계적으로 수선·유지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14억4천만엔(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를 결정하며 올해는 △경보수 76가구 △중보수 30가구 △대보수 35가구로 구분해 총 141가구에 맞춤형 수선을 진행한다.

특히,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주택 정밀 진단부터 공사 관리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기업인 소통 간담회 가져

순창군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군수를 비롯해 기

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내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기업 애로사항 처리결과 설명 △기업 지원사업 안내 △유관기관 지원사업 설명 △군수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순창군은 1분기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기업과의 실질적인 소통에 중점을 뒀다.

군은 현재 140개 기업이 운영 중이며, 식·음료 분야 기업이 약 70%를 차지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군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공기 2577년 순창향교 석전대제' 대성전서 봉행

공기 2577년 순창향교 석전대제가 24일 순창읍 교성마을 순창향교 대성전에서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순창향교(전교 유양회) 주관으로 향교 유림과 내빈, 군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대제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초헌관을,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아헌관을,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종헌관을 맡아 제례 시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헌작을 올렸다.

순창향교는 공자를 비롯해 맹자 등 중국의 4성과 10절, 그리고 설총·최

치원·안향·정몽주·김광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항·김인후·이이·성혼·김장생·조현·김집·송시열·송준길·박세채 등 우리나라 동국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